

간성읍

간성읍은 법정리 17개 행정리 33개리 116개반을 형성하고 있다. 총면적은 179.95km² 이다. 그리고 주민 미거주지역인 수동면의 면적은 144.07km² 이다. 남천과 북천 유역을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된 전형적인 농축 경영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하리(1리,2리), 신안리, 동호리, 봉호리, 상리, 간촌리, 교동리, 해상리, 광산리, 어천리, 장신리, 탑동리, 금수리, 진부리, 흘리, 탑현리로 구성되어 있다.

※간성읍에서 발생하는 아기자기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소개하는 시민기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681-1666)



지난 22일 오전 10시 고성군노인복지관 3층 회의실에서 2011년 간성읍 연초순방 및 현안사항 청취 간담회가 열렸다.

우리 마을 일꾼 ◇동호리 황봉순 이장

해양관광단지 조성 소망

고성군 간성읍 동호리 황봉순 이장(63세, 사진)은 오늘도 어김없이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과 정다운 이야기 꽃을 나누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고 한다.

올해로 동호리 이장으로 5년째 활동하고 있는 황 이장은 간성읍 이장단협의회장도 맡고 있다.

매사에 적극적인 황 이장은 “작은 규모의 농사를 주된 소득으로 하는 농가마을이지만, 순수한 정통적인 마을로 주민의 화합과 단결이 잘되고 참여율이 다른 마을에 비해 높다”며 마을자랑을 했다.

그런 황 이장은 “이 지역이 군사적 통제구역이다 보니 건축이나 우사 등 제재가 심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소연했다.

황 이장은 “우리 마을은 해양을 구성하고 있는 마을로 농한기에는 해양자원을 이용한 사업 소득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곳인데 안타깝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5년 전 동호리 어촌계가 설립 됐다고 했다. 지금은 마을전체가 명태 건조 덕장 및 흰다리 새우 양식을 하고 있으며, 제재 완화만 빨리 된다면 바다풀장과 바다 모래찜질방 등 해수욕장을 이용한 해양 관광단지를 조성 하는게 소망이라고 했다.

황 이장은 마을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도 해양 관광 유치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박승근 기자

광산리 광역상수도 설치 건의

2011년 간성읍 연초순방·현안사항 청취 간담회

2011년 간성읍 연초순방 및 현안사항 청취 간담회가 지난 22일 오전 10시 읍사무소 앞에 위치한 고성군노인복지관 3층 회의실에서 주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어촌2리에서는 마을의 교량이 낡고 비좁은 데다 군부대 훈련 때면 길이 막혀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새로운 교량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광산2리에서는 마을 상수도 고

장이 잦으니 광역상수도를 빨리 설치해서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인근 장신리 군부대 관계자도 마을 주민과 2천여명의 군부대 장병들이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했다.

흘리에서는 스키장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군에서 업자를 바꿔서라도 다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군유지를 임대해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에게 균유지 가운데 사유지와 연결되는 부분만이라도 불하해 달라고 했다.

간촌리에서는 우기나 폭우시 북천 용수로의 물이 넘쳐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km 구간 중 남은 1km를 복개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군청 민원인 주차장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다보니 불편하다며 개선책을 호소하는 건의도 있었다. 최광호 기자

기사제보
독자투고

☎681-1666~7 /팩스 681-1668
goseongnews@hanmail.net

고성신문 주주를 모집합니다

‘행복한 고성 만들기·행정과 주민의 가교·등잔 밑을 밝히는 신문’이란 창간이념으로 새롭게 창간한 고성신문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할 주주를 구합니다.

사업목적

- ◇ 신문발행
- ◇ 지역문화 발전
- ◇ 홍보물 기획·제작
- ◇ 기타 부대사업

-1주의 금액 : 10,000원
-주권의 종류 : 1주권, 10주권, 100주권

문의 ☎033)681-1667

주식회사 고성신문